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후 소비자 신뢰 더욱 높아져

연재순서

1. 계란내 콜레스테롤에 대한 새로운 상식 세미나
2. 생산자 중심의 일본채란산업
3. 일본채란업을 주도하는 애계원

대군업자 적극적인 참여

일본의 채란계 사육능가는 2004년도에 3,740농가로 성계기준 136,538천수가 사육되어지고 있으며, 10만수 이상 사육능가는 348농가로 전체 9.3%로 나타났으며 사육수수는 74,359천수로 54.5%를 차지하고 있다.

47개 현중 사육수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이바라기현(茨城)으로 10,131천수로 나타났으며, 지바현(千葉)이 8,069천수, 가고시마현(鹿児島)이 8,049천수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기자가 방문한 이바

라기현을 중심으로한 관동지역이 채란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이후 일본 채란업계는 지난해 초 일본계란생산자협회(日本鶏卵生産者協會)가 발족함과 동시에 대군업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대군업자들과 소군업자들이 나뉘어져 있어 일본양계협회도 소군



▲ 다양한 홍보팜플릿을 제작, 소비자들에게 계란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대군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계란우수에 대한 홍보활동이 예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공급을 요구받고 있어 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는 모습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이후 대군업자 참여 및 위생개념 확립은 일본의 양계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였으며, 자국내의 채란업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생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생산자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

즉, 일본에서는 100만수 이상 사육하는 15개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양계발전에 참여하면서 각종 계란홍보활동 등을 벌여가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본계란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후 품질과 위생면에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생산자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상인유통마진 보장, 계란유통 혼란 방지

기자가 방문할 당시인 6월 중순경,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후 난가가 고가로 형성되고 있었다. 일본의 계란 크기는 농림수산성 규격으로 LL(왕란 70~76g), L(특란 64~70g), M(대란 58~64), MS(중란 52~58g), S(소란 46~52), SS(경란 40~46)로 나뉘어져 있으며, 난가발표는 도쿄시장의 35%의 시장점유를 하고 있는 전국농협협동조합이 체인망을 통해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kg당 가격이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에 매일 발표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는 동경, 오사카, 요코하마, 나고야, 후쿠오카지방의 난가와 동경, 나고야, 오사카 지역의 육계가격이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된 가격은 다음날 적용이 되며, 이 발표가격을 기준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적으로 조절하여 시행하는데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일본을 방문중이던 지난 6월 15일의 난가는 kg당 왕란 5엔, 나머지 품목 각각 10엔씩 인하되면서 난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과 전체적인 난가흐름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란은 kg당 190엔(약 개당 118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DC와 같이 일본에도 kg당 30~40엔(개당 18~25원)의 DC(유통마진)가 이루어지면서 실제 유통가격은 kg당 150엔(약 개당 94원)으로 아직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1. 일본의 계란 크기별 난중

크 기	상표색	난중(g)	평균난중
LL(왕란)	빨간색(赤)	70이상-76	73
L(특란)	오렌지색(橙)	64이상-70	67
M(대란)	초록색(綠)	58이상-64	61
MS(중란)	푸른색(靑)	52이상-58	55
S(소란)	자주색(紫)	46이상-52	49
SS(경란)	갈색(茶)	40이상-46	43

- 농림규격 -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발표된 DC가격이 유통마진 개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일본난업협회(계란유통협회)나 유통상인들도 이익없이 모든 가격을 따르고 있어 유통의 혼란이 없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점이라 할 수 있다.



▲ GP센타를 통해 위생적인 계란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30만수가 사육되는 이바라기현의 애계원 농장 내 GP센타)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계란은 3일 이내에 소비자의 식탁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매장에서 3일이 지난 계란은 농장으로 반품되거나 난가공장으로 판매가 되어지고 있다. 일본의 농산물 유통 대형매장인 Coop를 방문했을 때 판매되고 있는 소비자 가격은 특란의 경우 개당 208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매장에는 백색란 뿐만 아니라 갈색란도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었는데 일본은 70%가 백색란이 유통되고 있지만

갈색란 비율도 30%로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농장에 딸린 농장에서는 54개가 담긴 계란들도 판매가 되면서 지나가는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난가발표에 있어서는 앞으로 생산자들의 유통물량이 커져 농협이 30%이하로 유통량이 줄어들 경우 생산자 위주의 난가발표도 가능할 것이라고 계란생산자협회 관계자가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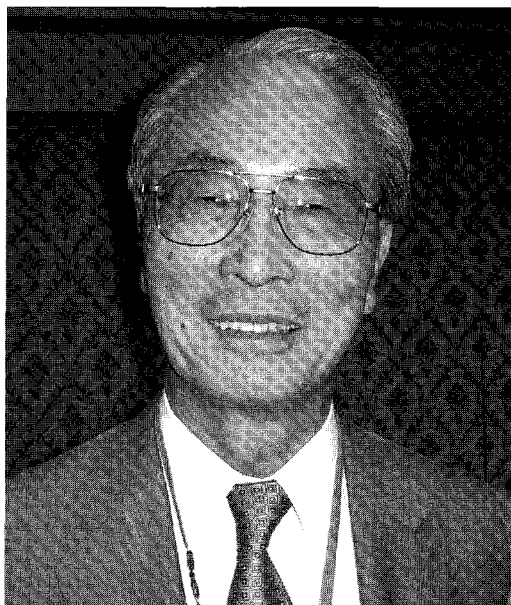
생산자 스스로 방역기금 거출, 방역활동 전개

지난 2003년 12월 28일 야마구찌현과 2004년 2월 오이타현에서 발생했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이후 일본양계업계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채란업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회장부부가 자살하는 등 양계산업의 선진국으로써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된 것이다. 일본을 방문하면서 만난 생산자, 일본양계협회, 계란생산자협회, 일본난업협회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한국 질병현황과 북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일 정도로 일본에서도 제2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백신개발에 착수하고 한국과의 공조체제를 준비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기자가 다녀온 이바라기현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2)가 발생, 5개농장에서 살처분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미 일본에는 생산자들이 방역사업을 위해 금년 3월 1일 현재 57억원을 정립하여 방역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가족방역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농가들도 전 업종에 걸쳐 4,263농가(2억4,740만수)로 질병방지에 대해 공동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생산자 조직의 활동

일본 양계산업 조직은 일본양계협회와 일본식조협회로 크게 나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채란업의 경우 일본양계협회, 일본계란생산자협회, 일본난업협회로 나뉘어져 있다. 일본양계협회는 동경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전국 47개현중 43개현에 지부를 두고 있다. 양계협회 산하에는 일본계란생산자협회가 주축이 되어 회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육계인(관련단체), 전국농협협동조합연합회, 일본양계협동조합연합회, 전국계란판매협동조합연합회, 전국양계경영자협의회, 일본계란산업협회, (조)일본사료공업협회, (사)일본중계부란협회, (사)일본란업협회, 일본성계처리유통협의회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모든 양계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 관동지역 양계인대회에서 만난 일본양계협회 및 계란생산자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우메하나히로야스 회장, 10만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다.

양계협회는 1년에 5회정도 이사회, 2~3회 정도의 세미나, 1번의 전국양계인대회, 2차례 정도의 야유회 등을 펼쳐가고 있으며, 각 지역적으로 양계인연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양계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양계협회 직원은 10명, 예산은 1년에 25억 정도로 90% 이상이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양계협회 및 계란생산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우메하나히로야스(梅原宏保) 회장은 10만수의 채란업을 하고 있는 생산자로 그동안 정부출신이 회장을 맡아오던 것을 처음으로 생산자가 회장에 당선되는 역사를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가 생산자들의 힘을 더욱 결집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계란생산자협회는 지난해 1월 21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채란인들만을 위한 협회를 만들자는 분위기가 급격히 일기 시작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 피해 생산자의 구제책 마련, 저난가 타개책 마련 및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결성되어 회원들만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계란생산자협회는 일본양계협회와 같은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회장과 전문가 동일 인물로 정부와의 교섭은 양계협회에서, 대외적인 활동은 계란생산자협회에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계우회연합회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채란인 전체 4,000여명중 561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 규모가 큰 대군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1,500만수를 사육하는 I농장의 경우 양계업계에 도움을 주지 않아 비판을 받는 일면도 엿볼 수 있었다.

(사)일본난업협회는 우리나라의 계란유통협회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며, 전국에 230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명의 이사중 생산자도 2명이 포함될 정도로 생산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양계인 대회를 가다

지난 16~17일 양일간에 걸쳐 사이타마현 후쿠야 그랜드호텔에서는 관동지역에서 모인 양계인 및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계인대회가 열렸다. 1박 2일동안 참석하는데 1인당 20만원의 참가비를 내야했다. 우리 일행은 이바라기현과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애계원의 협찬으로 첫날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본 대회는 관동지역 7개현(이바라기, 사이타마, 나가노,



▲ 관동지역 양계인대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생산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지바, 군마, 도치니, 시나가와, 야마나시, 니가타현)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대회를 갖는데 사이타마현이 금년에 주체를 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계협회 관계자가 질병, 유통 등 최근의 채란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기념 강의로 중국의 식량사정과 계란내 콜레스테롤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의 현황에 대해서도 역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활동 및 자국내 계란을 지키기 위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저녁 리셉션에서는 외부초청 공연 등을 통해 양계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양계인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대회에 참여하는 모습은 지난 14일 콜레스테롤에 대한 새로운 상식 세미나에서와 같이 한결 같은 모습이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계란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민족이다. 1년에 1인당 330개의 계란소비는 프랑스 270개, 미국의 260개, 독일 230개, 한국 190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일본 호텔의 조식에 신선한 날계란이 자연스럽게 식단에 포함되어 나와 필자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그들은 간장과 양념 등을 섞어 건강식으로 계란을 먹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가공, 조리용 식품들을 만들면서 가공란 소비가 50% 이상 차지하는 것도 계란소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 일본관동지역 양계인대회에서 간식으로 계란용조리식품이 포장되어 참가원들에게 제공이 되는 것도 일종의 계란소비와 무관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취재 | 김동진 홍보팀장
dj@poultry.or.kr